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2:14)”

바닥교회도시공동체 「꽃들에게 희망을」 통권9호

19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식

제3호

1994년 9월 12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5층 ☎ 02)859-0430

사랑은 ?

부디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공상이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위의 벼집을 달고 그뉘를 제기 시키는 인간의 입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나님은 사랑을 땅위의 질서와 결부 시켜셨습니다.

사랑은 꿈이 아닙니다.

입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랑,

인간의 이런 사랑은 무와 같습니다.

생명의 지혜, 생명의 입, 잠담, 가정의 질서, 연루변영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신중하고 사려 깊은 영혼의 상태,

이런것이 같이 되었을때 사랑이란 동물적인 동경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물도 다른 동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그 나름의 동정을 보이니까요.

그러한 동정은 사람을 끄는 입도 없고 아무 작용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답지 못합니다.

오랜데 이런 사랑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주는 희망은 공허한 가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 페스탈로찌의 리아루트와 켈트루드 중에서 ...

“내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장 14절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소식

올해의 두번째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귀향모임』은 김재오 전도사가 출국한 6월 5일 이후 국내팀과 국외팀으로 나뉘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전도사와 예비 외국인 노동자 간사 2명으로 구성된 국외팀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을 돌며 현지에서 사무실을 열고 산재자를 구체적으로 모집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국내팀은 여간사 두명이 국외와 연락하면서 한명은 기존에 해왔던 상담활동을 계속하고, 한사람은 국외팀이 돌아오는대로 정부와의 접촉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을 만나며 귀향모임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팀의 진척상황

지난 6월 14일, 국회.대통령.국제화 추진본부.노동부.법무부.외무부.상공부에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본국송금 및 재입국허가권 위한 청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국외 산재자나 체불자가 개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입국비자를 주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취업한 사업장명과 소재지, 재해경위, 체불임금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제출하면 이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 본인이 입국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니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이 우선적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으며, 상공부와 국제화 추진본부에

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기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산재문제와 임금체불 문제 처리 업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마무리 되지 못했던 호소농성에 참여했던 산재자들의 재수술과 보상문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 향모임 국외팀이 돌아와서 시작될 본격적인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서 회원모집과 조직사업-지지도확보등-을 통한 여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팀의 진척상황

국외팀은 6월 5일 서울을 출발하여 방콕, 네팔, 방글라데시를 거쳐 7월 13일 현재 스리랑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는 5일 동안 체류하며 몇몇 사회운동 단체들을 방문하였는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자국민 노동자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또, 차후에 연대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단체들이 태국내에서 산재자를 모집중에 있으며 아마도 오는 7월 말경 재입국시 다시 접촉이 있을 것입니다.

네팔에는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체류하였습니다.

체류중 사무실을 카트만두에 열었습니다. 모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기타 지역마다 분소를 두어서 모집을 진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사

무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산재자 모집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 결정에 대한 홍보작업이 될것입니다. 10일에는 주재 한국대사와 교회 선교단체들을 만나서 귀향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곳 한국대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한달전에 각국 대사관에 훈령을 내려서 산재당하고 귀국한 사람들을 조용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네팔 산재자 모임과 방글라데시 산재자 모임을 연결하기 위해서 네팔 산재자 한사람이 김재오 전도사와 함께 방글라데시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네팔에서는 그곳 산재자들의 지지와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27일에 도착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한국 대사를 만나서 취지를 설명하였고, 본국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돕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수도 다카에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7월 6일 인도의 켈거타를 거쳐 입국하여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오 전도사는 섭씨 40도가 오르내리는 후덥지근한 날씨와 몸이 근저럽고 딱지가 지는 것 때문에 힘이 든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팀은 일이 긍정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들을 돌면서 대사관이나 현지의 한국인들을 접하면서 국외팀이 느낀 것은 의외로 이 일을 훨씬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야기 하나

다음은 김재오 전도사가 네팔에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부 네팔의 주도 다란에서 한 한국 여인을 만났는데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인과 결혼하였답니다. 지금은 다란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갔다 온 사람이 찾아와서 식탁보에 서투른 한글로 “한국사람 개새끼”라고 써놓거나, 식탁보를 담배볼로 지지고 간다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김재오 전도사도 봉변을 당할뻔 했는데 그곳에 사는 네팔인이 찾아와서 욕을 하더랍니다. 한국에서 팔을 찢려온 옆에 있던 네팔인 친구가 도와줘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5개월 임금을 떼이고 마음에 한국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일할 때 한국사람들이 “야 이새끼야 빨리빨리” “빨리가 이 새끼야” 라는 등의 말을 흉내내며 자기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근로자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답답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또한 산재당한 이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실의에 빠져있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편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들녘에 솟아난 푸른 들풀에는 신의 지혜와 사랑이 보이고, 인간의 숲에는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연약한 삶들이 보입니다.

그동안 저희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를 사랑해 주시고, 「귀향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의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거나 회비를 보내 주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와 면식이 없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서너 페이지의 회보나 안내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환경의 실상이나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를 꾸려가는 속사정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모자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에 호소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물로 대신함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마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뜻을 전해주시고 이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음을 볼 때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단체에 「귀향모임」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해 주십시오.

평일에는 업무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전화마저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말에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역 주변을 지날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서 일 꾸려가는 모습도 보시고 웃음을 나눠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은 세계에 인간의 비참함이 그칠날을 고대하면서

1994. 7. 귀향모임 일동

기도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1. 한국에서 산재당해 돌아간 많은 형제들이 실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귀향모임」국외팀이 무사하게 일을 잘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각국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찾습니다.
숙식은 현지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지인들의 가정에서 무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본인이 항공권을 부담하고 월 생활비 5만원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에서 주 1일 이상 근무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5. 정부의 보상에서 누락될 사람들(5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모금활동과 보상권 종료후 각국 산재자들의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지원해줄 개인이나 단체를 찾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신 분

| | | | | |
|------------------|------------------|-----|-----|-----|
| 고운석 | 권기영 | 김거성 | 김기성 | 김난주 |
| 김남희 | 김도형 | 김말룡 | 김민자 | 김성원 |
| 김성진 | 김영숙 | 김영순 | 김용욱 | 김계환 |
| 김정렬 ¹ | 김정렬 ² | 김주희 | 김학기 | 김해진 |
| 노시남 | 류승구 | 박갑식 | 박기동 | 박상운 |
| 박상운 | 박혜숙 | 서대원 | 서동태 | 서유정 |
| 성인심 | 손호익 | 신선교 | 양기진 | 오송희 |
| 우원식 | 유용화 | 윤환철 | 이명호 | 이순진 |
| 이순희 | 이영녕 | 이재정 | 이재형 | 이정은 |
| 이정은 | 전미경 | 전승면 | 조정선 | 조정현 |
| 최영교 | 최정아 | 한창서 | 함경숙 | 홍석창 |
| 황동미 | 황인수 | 무명 | 교수님 | |

과학원교회, 서울 영동교회, 시민종합법률사무소, 한국통신노조, 탄포리 교회

(이름이 누락된 분은 연락주십시오.)